

# 미국 경기부양책 축소...경제회복세 꺾이나

### 재난지원금·실업수당 확대 등 종료 골드만삭스 "GDP 효과 6%→2%로" 소매 판매 성장률 4%로 줄어듦

미국에서 코로나19로 도입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최근 축소되면서 경제성장률에 큰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이후 도입된 재난지원금, 실업수당 확대, 아동 세액공제 등 미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대부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분기까지 정부 부양책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6%포인트 가량 끌어올린 효과가 있었으나, 올해에는 그 증대

효과가 2%포인트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이 경제를 떠받치는 수준이 꽤 크게 후퇴했다"라며 "다른 요인들이 이를 상쇄해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기본 가정이지만 여기엔 씨름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무라증권의 로버트 텐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부양책 축소에 따른 충격이 GDP의 2.5~3%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2조4000억달러(약 2873조원)에 달하는 초과저축이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런 막대한 초과저축이 예상만큼 소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과 미 의원들은 정부의 막대한 경기부양책이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맞다면

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시장분석업체인 에버코어ESI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재난지원금과 아동세액공제 등으로 지난해 미국 가계가 약 1조달러(약 1197조원)를 받았고 이 중 25~30%가량이 자동차, 가스, 외식업 등을 제외한 소매유통 판매로 흘러 들어갔다.

그 결과 해당 산업 분야의 매출이 2500억~3000억달러(약 299조3000억~359조2000억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축소로 소매 판매의 명목 성장률이 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의 여전한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통화긴축에 신속하게 나서지 않는 것은 고용시장에 미칠 악영향 때문이라고 이날 진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긴축정책으로 선회를 천

명했으나, 아직 시장이 전망하는 수준의 긴축을 보여주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의 유럽중앙은행(ECB)은 현재까지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 입장이다. 이는 시장에서 연내 연준은 6~7회 기준금리 인상, ECB는 2회 인상을 예상하는 것과는 괴리가 적지 않다.

블룸버그는 과거 서구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까닭에 이들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더 큰 문제로 본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2010년대 각국에서 높은 실업률이 포퓰리스트가 득세하게 된 토양이 된 것처럼 역사적 사례를 보면 높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낳았다며 이런 점진적인 긴축 전략이 리스크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미얀마 군부 "내달 방문 아세안 특사 반군부 세력 만남 안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특사가 쿠데타 유희사태 해결 중재를 위해 내달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반군부 세력과의 만남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사가 미얀마를 방문하더라도 쿠데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전망이다.

2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외교부는 전날 밤늦게 성명을 내고 "특사를 포함한 아세안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특사가 불법적 조직 및 테러리스트 단체들과 상대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그들은 폭력을 저지르고 완전히 파괴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군부 세력과의 만남을 허용하라는 제안은 아세안 헌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아세안의 반(反)테러 노력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중국 2월 기준금리 동결 두달 연속 인하 후 숨고르기

중국이 2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월 1년 만기 LPR가 전달과 같은 3.7%로 집계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 5년 만기 LPR도 4.6%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LPR는 명목상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취합한 수치지만 인민은행이 각종 통화정책 도구와 정책 지도 기능을 활용해 LPR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LPR를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인민은행은 작년 12월 1년 만기 LPR를 0.05%포인트 내린데 이어 올해 1월에는 1년 만기 LPR를 0.1%포인트, 5년 만기 LPR를 0.05%포인트 낮췄다.

중국이 LPR를 인하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초기이던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인민은행이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미중 금리 격차 축소에 따른 부담을 감소하고 두 달 연속 LPR를 내린 가운데 시장에서는 당국이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효과를 일단 지켜보고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달 LPR는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올해 경제 운영 방향을 확정하는 내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기점으로 작년 말부터 성장 지원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경제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본격적 금리 인상에 접어들 예정이어서 중국의 금리 인하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선 소폭이나마 금리와 지급준비율이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그리스 해상 사고 때 불타는 이탈리아 여객선 20일(현지시간) 그리스 코르푸섬 인근 해상에서 화재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이탈리아 여객선 '유로페리 올림피아 호'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인공에서 구조선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조대원들은 이날 여객선 수색작업 중 남성 한 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앞서 전날에는 생존자 한 명이 극적으로 구조됐다. 이로써 실종자 수는 10명으로 줄었다. 나머지 승객·승무원 280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다. /연합뉴스

### 크레디트 스위스 비밀고객 3만여명 드러나...독재자·전범 포함

#### 세계 46개 언론 공동탐사 보도

#### 비밀계좌 운용자금 120조원 넘어

스위스 대형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에 비밀계좌가 있는 '비밀고객'의 명단이 대거 드러났다고 영국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 AFP·dpa 통신 등 해외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명단은 NYT와 가디언, 프랑스 르 몽드,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 세계 46개 매체가

참여한 '조직범죄·부패 보도 프로젝트'(OCCRP)가 익명의 크레디트 스위스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3만여 명이 크레디트 스위스 비밀계좌로 운용한 금액이 1000억 달러(현재환율 기준 약 120조원)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과거와 현재의 비밀고객 중에는 인신매매범, 전범 등 범죄자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가수반과 장관, 정보기관장, 유력 정치인, 주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국적은 주로 아프

리카와 중동, 아시아, 남아메리카였고 관련 계좌의 1% 정도만 서류업 고객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공한 크레디트 스위스 내부 고발자는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구실은 스위스 은행들이 탈세자와 협력하는 부끄러운 일을 은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자료에는 1940년대부터 2020년 말까지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계좌 1만 8000여 개의 소유자인 3만 7000여 명의 개인과 기업 정보가 포함됐다. /연합뉴스

### "합의한 대로 다리 자른다" 호주서 엽기 살인사건 발생

호주에서 30대 남성이 60대 남성의 다리를 합의하에 절단, 숨지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BBC방송·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 북부 이니스필 지역 공원에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36세 남성 A씨와 66세 남성 B씨가 이날 오전 4시께 나란히 차를 타고 공원에 와 나무 밑에 앉았고, A씨가 전동 톱으로 추절되는 물체로 B씨의 무릎 밑을 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리가 잘린 B씨를 차로 옮기고 나서 자리를 떴다. B씨는 오전 4시 30분께 행인에게 발견됐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당일 경찰에 소재가 파악됐으며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현지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절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이런 합의를 하게 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개리 헌터 경위는 호주 언론에 "34년을 경찰에서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면서 "비극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